



사라져가는 동물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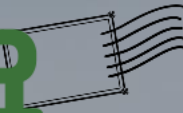
우리 이야기 들어볼래?



젠투 펭귄이
사막여우에게



편지가 왔어요



안녕, 사막여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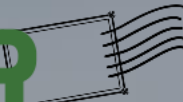
난 젠투펭귄이야. 이렇게 편지로 인사를 하게 되어 반가워.

내 소개할게. 난 남극 세종과학기지 근처에 살고 있고

황제펭귄과 킹펭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펭귄이야.

그런데 요즘 힘들어. 지구온난화로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어.

편지가 왔어요



얼음이 녹으면 어린 펭귄은 솜털에 방수 기능이 없어서

바다에 빠지면 죽을 수도 있어.

또 눈이 오는 날보다 비가 오는 날이 더 많아지면

어미가 먹이를 구하러 간 사이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어.

편지가 왔어요



그리고 크릴은 내가 아주 좋아하는 먹인데 빙하가 녹으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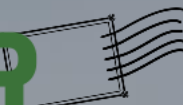
크릴도 많이 줄어들었어. 얼마 전에 바다로 나가다가

크릴을 잡는 사람들을 봤어.

우리는 새끼를 기르려면 크릴이 꼭 필요한데 혹시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목적으로 잡는 걸까?

편지가 왔어요



우리 뭍도 남겨 줘야면 좋겠어. 동지에서 배가 고파 새끼들이

기다리거든. 나뿐만 아니라 남극에서 사는 대왕고래,

흑등고래, 작은 물고기 등의 중요한 먹이야.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마구 잡아가서 크릴을 찾아 우리들은

더 먼 바다로 먹이 사냥을 나가게 되고,

편지가 왔어요



어미 펭귄이 먹이를 찾아 오가는 동안 굶어 죽는

새끼 펭귄들이 많아졌어.

이제다가 내 친구들이 모두 사라질까 걱정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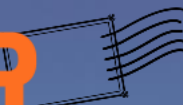
사막여우야 너는 어때?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있어?

우리 이야기 들어볼래?



편지가 왔어요



안녕, 나는 사막여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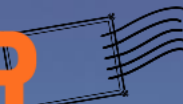
남극에 사는 젠투펭귄 편지를 받다니 너무 기뻐.

나도 내 소개할게. 나는 북부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어. 그런데 지금은 국립생태원에서 살고 있어.

내가 왜 국립생태원에 살고 있는지 이야기해 줄게.

편지가 왔어요



사막은 낮에 덥고, 밤에는 추운 곳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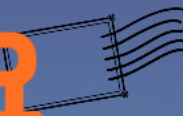
몸의 열을 식히기 위해 큰 구를 가지고 있고,

털로 덮힌 발바닥은 뜨거운 사막의 열기로부터

몸을 보호해 주.

사람들은 나를 귀엽다고 해.

편지가 왔어요



어느날 사람들이 나를 잡아서 작은 상자에 숨겨 데려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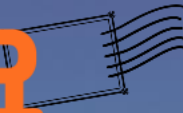
나는 너무 무서웠어. 나를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 **밀수**라는 것을 한거야.

밀수는 나라에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들여오는 거야.

편지가 왔어요



나와 함께 밀수된 친구들이 많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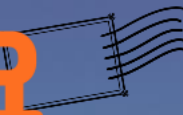
긴 시간 작은 상자에 갇혀 오다 보니 많은 친구들이 병에

걸려 죽고, 살아있는 5마리도 갈 곳이 없어 죽을 수도 있었었는데

국립생태원에서 보살펴 주어서 살고 있어. 나뿐만 아니라 여기서

살고 있는 **순다늘보원숭이**도 마찬가지로 **밀수** 됐어.

편지가 왔어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사람들 곁이 아니야.

사람들 욕심 때문에 사라지고 있는 동물들이 많아.

원래 내가 살던 곳에서 친구들과 자유롭게 뛰어 놀고 싶어.

희색앵무야 너는 어때?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있어?

우리 이야기 들어볼래?



회색앵무가
사람들에게



편지가 왔어요



안녕, 난 호색앵무야.

사막여우 편지를 읽어보니 나랑 비슷한 것 같아 슬퍼.

내 소개할게. 난 아프리카 중부지역에서 태어났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몸의 깃털이 호색이고,

꼬리 부분은 붉은 색을 띠고 있지.

편지가 왔어요



나는 똑똑한 새야. 4~5세 정도 지능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지능이 높아 주변의 많은 소리를 따라 할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애완동물로 많이 기르고 싶어해.

편지가 왔어요



이제다가 내 친구 도도새처럼 아주 사라져 버릴까 걱정돼.

아주 특별했던 새, 도도새를 들어봤니?

도도새는 인도양 모리셔스섬에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들어와

마구 잡아 멸종됐어. 도도새는 카바리아 나무의 열매를 먹고,

씨앗은 똥으로 나와 여기저기에 퍼뜨렸어.

편지가 왔어요



도도새가 사라지자, 카바리아 나무도 두따라 사라져갔어.

도도새가 없으면 카바리아 나무는 씨앗을 퍼트릴 수 없거든.

내가 도도새처럼 사라지지 않도록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어?

난 숲으로 돌아가고 싶어.

새장 밖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재잘거리며 날고 싶어.

편지가 왔어요



이렇게 자꾸만 하나둘씩 사라지다가는

사람들도 살기 힘들어질 수 있어.

우리가 사라지지 않고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 친구들아!

도와줄 수 있지? 약속!